

카스틸라의 한 마을로부터

스페인에는 수백여 개에 달하는 관상 수도원들이 존재한다.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이 유서 깊은 관상 수도원들이 침묵 속에 기도하며 오늘날까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바야돌리드 교구, 올메도라는 작은 마을에 도미니코회 <천주의모친> 관상 수도원이 있다. 사백여 년의 역사를 지닌 이 수도원도 인간의 성덕과 나약함이 함께 공존하는 지극히 평범한 수도원들 가운데 하나였다. 진귀한 예술 작품도, 유명한 성녀를 배출한 적도 없는 이름 없는 수도원이었다.

지금부터 9년전인 1972년, 이 수도원에서 한 여인이 선종하였다. 그녀는 꺼져가는 수도원을 꽃 피우게 하려고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도구였다. 현재 수도원에는 90명에 가까운 수도자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불과 수년 사이에 5개의 수도원이 푸에르토리코와, 앙골라, 구라샤오와 대만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세워졌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그리스 산토리니 섬에 또 하나의 수도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그 가난하고 오래된 수도원이 이렇듯 영적인 활력으로 흘러 넘치고 엄격한 봉쇄와 순수한 관상 그리고 사도적 열정과 선교정신으로 교

회와 함께 하며 기도와 전례, 침묵과 노동, 검소함과 엄격함이 함께 어우러지는 수도원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녀는 기쁨과 평화가 감도는 수도원, 사랑과 애정으로 일치된 공동체를 이끌어 냈다.

신앙의 위기로 인해 수도생활에 위기가 찾아오고 성소자가 격감하고 있는 이때, 유독 이 수도원에만은 성소자들이 쇠도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된다.

이러한 변화들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의 테레사 마리아(TERESA MARIA DE JESUS ORTEGA PARDO)라는 수녀를 만나게 된다. 이제부터 나는 이 여인의 삶과 영성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 하고자 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그녀의 삶을 옆에서 지켜본 나에게는 매우 즐거운 의무이기도 하다.

1. 생애

데레사는 푸엔테 갈데라스(폰테 베드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호세 마리아 오르테가 이하소는 그 지역의 전신전화 국장이었으며 어머니는 마누엘라 파르도였다. 이 둘 사이에서 데레사, 엔카르나시온, 그레고리오 세 명의 자녀가 태어났다. 데레사는 1917년 12월 25일 밤에 출생하였다.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찬 성탄 밤이었다. 1926년, 아버지는 고향인 테루엘로 발령을 받아 가족들과 함께 그곳으로 자리를 옮겨간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27년에 그곳에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다. 어머니의 죽음은 어린 데레사의 영혼에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자취를 남겨놓았다. 이때부터 아버지의 여동생 엔카르나 고모가 삼 남매를 돌보게 되었다.

데레사는 신심 깊고,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났다. 처음에는 가정교사를 초빙하여 집에서 교육을 받다가 다음에 프란치스코 제3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마치고 데레시안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끝낸다.

데레사는 밝고 명랑한 성격에 사람들을 끌어 당기는 힘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탁월한 지적 능력과 함께 음악과 수공예 등 다양한 방면에 재능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그녀에

게 사춘기의 유혹이 찾아온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건강한 가정 환경과 <액션가톨릭>과의 만남은 이 위기를 큰 문제 없이 넘길 수 있게 해주었다. 당시 데레사에게 큰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이 있었다. 페루엘 지역 <액션가톨릭> 본부의 여성 지도자인 돌로레스 알베르와 1937년, 스페인 내란 때 순교한 마누엘 이노호사 신부이다. 데레사는 자신을 영적으로 지도했던 이 거룩한 사제를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다.

1936년, 전쟁이 시작 되었을 때, 데레사의 가족은 페루엘에 살고 있었다. 1938년 초,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도시가 점령되자 가족들 모두가 투옥되었다. 처음에는 세고르베에 수용되었다가 다음에는 발렌시아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곧 풀려난 데레사는 발렌시아의 한 가정에 하녀로 들어갔다.

전쟁이 끝나고 발렌시아에 있는 데레시안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데레사는 1941년 11월에 문학과 철학 과정을 시작한다. 그 무렵 가족들이 사라고사로 이주하자 그곳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1946년 5월 30일 석사 학위를 취득한다.

학생 시절부터 데레사는 동료 학생들에게, 심지어 교수들에게까지 크나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무엇보다 당시 왕성

했던 <가톨릭운동>에 몸을 담고 열성을 다하여 일하였다. 1946년 그녀는 사라고사 교구, 여성 <액션가톨릭> 지도자로 임명되었다. 데레사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수 과정들을 계획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지도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 다니며 교구 <액션가톨릭> 발전을 위해 혼신을 기울였다.

1955년까지 그녀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사도직을 수행하였다. 사라고사 교구뿐만 아니라 스페인 여러 지역에서 그녀를 초대하였으며 가는 곳 마다 그녀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팔렌시아, 페냐피엘, 아란다, 부르고 데 오스마, 아빌라, 알코이, 온테니엔테, 알메헤시, 카르따헨테, 로드리고 등 그녀가 걸은 사도적 여정은 참으로 놀라운 정도였다.

1947년, 데레사는 테루엘에서 필자가 지도하는 피정에 참여하였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데레사는 여러 차례 아빌라를 방문하였다. 매년 여름에 개최되는 <성녀 데레사와 성요한> 주간에 참석하였으며 개인 영성 지도를 받거나 <액션가톨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1951년 데레사는 올메도로 거처를 옮겼다. 당시 올메도는 아빌라 교구에 속해 있었다. 데레사가 이곳을 찾은 목적은 마을 주민들의 신앙심을 일깨우고 이를 위해 청년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마을 학교 교사로 온 것처럼

하며 자연스럽게 청년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양치기 호세 곤살레스와 사그라리오 데 라 로사 부부의 집에 거처를 정하고 그들의 가난한 삶을 함께 나누며 올메도와 인접 마을에서 만나는 많은 소녀들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신앙을 전파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데레사는 도미니코회 <천주의모친> 수도원을 알게 되었다. 당시 수도원은 모든 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1953년 데레사는 아빌라와 사라고사의 대주교 그리고 수녀들의 동의를 얻어 사라고사 교구의 도미니코회 다로카 수도원에서 3명의 수녀들을 올메도로 옮기는데 성공하였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원장으로 파견되었는데 그가 바로 데레시타 이리아르테 수녀이다. 그녀는 뛰어난 희생과 극기 정신을 지닌 거룩한 수녀였다. 이와 함께 데레사는 자신이 길러낸 젊은이들 가운데 관상 생활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을 이곳 올메도의 <천주의 모친> 수도원으로 인도했다. 그러나 데레사의 계획은 1954년 10월 14일 데레시타 수녀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만 같아 보였다.

이런 와중에 데레사 자신도 봉쇄 생활을 원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의 성소는 '하느님의 구르는 돌'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성소는 관상 생활로 옮겨가

고 있었다. <액션가톨릭>의 지도자로서 당시 그녀는 많은 오해와 비판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을 평신도 사도직으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는 하느님의 신비로운 부르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부르심에 관대하게 응답하기를 갈망하였다. 1955년 12월 8일, 데레사는 세빌라의 예로니모회 <성녀 바울라>수도원에 입회 한다. 그녀는 여기서 순명 안에 숨어 사는 삶을 배우게 될 것이다. 1956년 6월 8일 예로니모 수도회의 수도복을 받고 1957년 6월 9일 첫 서원을 발한다.

한편 원장 데레시타 수녀가 세상을 떠나고 그를 동반했던 다른 두 수녀가 다로카의 자기 수도원으로 돌아가자 올메도에 남아있던 수련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올메도에서 세빌라로 걸려오는 전화 횟수가 점점 더 빈번해져 갔고 데레사는 최선을 다해 그녀들을 도와 주었지만 결국 올메도로 옮겨 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허가를 얻은 후 데레사는 1957년 10월 22일, 올메도에서 도미니코 수도회의 수도복을 받는다. 새로운 삶과 모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올메도의 상황은 대단히 어려웠다. 그러나 일개 수련자인 데레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으며 수도원은 여전히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적절한 기회에 법정 방문이 있었고 이에 따른 직무의 변경은 수도원의 분위기를 쇠신하였다. 데레사 수녀는 말보다는 행동과 표양으로 효과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수도원의 영성을 들어 올렸다. 이 과정에서 그녀가 겪은 고통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959년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그 무렵 탄생한 <도미니코 관상수도원> 연맹에서 쿠엔카의 <벨몬테>수도원에 필요한 도움을 올메도 수도원에 요청해 온 것이다. 데레사 수녀는 유기 서원자에 불과하였지만 다른 네 명의 수도자의 선두에 파견되었다.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으로 그녀는 새로운 자매들을 돌보았다. 더 나아가 <벨몬테> 수도원을 올메도로 이전하여 두 수도원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수도원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어려움이 어떠했을 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반대를 감내해야 했고 필요한 허가를 얻어내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마침내 1960년 8월 20일, <벨몬테> 수도원의 수녀들이 올메도에 도착하였고 그 해 9월 15일, 데레사는 종신 서원을 하게 된다.

이때부터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1960년 12월 23일, 데레사 수녀가 원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이제 그녀는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수도원 밖으로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당시 올메도에는 세 그룹의 수녀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 올메도에 이미 있던 기존의 수녀들, 벨몬테에서 온 수녀들, 데레사의 인도로 수도 생활을 시작하고 있던 젊은 수녀들, 이들 모두 열심한 수도자들이었지만 감수성이 강한 여성들이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쇠신 되어갔다. 먼저 엄격한 봉쇄생활을 준수하기 위해 수도원에 딸린 어린 소녀들을 위한 작은 교육기관이 폐쇄되었다. 전례는 노래로 장엄하게 거행하였고 독서기도는 한밤중에 일어나 바쳤다. 넓고 오래된 수도원 건물 보수 작업에 착수하여 가대소(coro)가 새로이 지어졌고 성당도 말끔히 단장되었으며 좀더 안정되고 수익성이 높은 공동체 작업이 도입되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강의와 면담들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갔다.

한편 성소자의 증가는 새 수도원 창립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1961년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코회 신부들의 초대를 받아 세 명의 수녀가 첫 그룹으로 파견되었고 다음에 몇 사람이 여기에 합류하였다. 1966년에 바야몬에 수도원이 축성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 차례 자리를 옮겨야 하는 등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데레사 수녀는 굳센 정신과 의지로 그들을 뒷받침하였다.

1971년 앙골라 수도원 창립의 기회가 찾아왔다. 데레사 수녀는 이 수도원 창립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열정을 다 쏟아 부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며 창설 멤버들을 준비시켰다. 1972년 3월 6일 아침, 마침내 그녀의 선망과 사랑의 대상이었던 검은 대륙 아프리카, 벵겔라로 향하는 수녀들을 지켜보게 되었다. 이때 그녀의 병세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어릴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점점 더 악화되었고 이 병약한 체질 때문에 대수술을 여러 번 받아야 했다. 1950년 사라고사에서, 1952년 아빌라에서 응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다시 1963년과 1968년 사라고사에서 두 차례, 또 팜플로나에서 1968년, 1969년, 1971년 세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1972년 나바라에서 마지막 수술을 받고 선종한다. 그녀는 간, 췌장, 담낭, 신장 등 거의 모든 장기에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에너지로 글을 쓰고, 대화하고, 모든 이를 보살폈다. 그리고 기도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미사에 참여했으며 영성체는 절대로 거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를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녀의 심각한 건강상태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완전한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내며 일상 생활을 해나갔다. 마지막 무렵에 그녀는 거의 모든 시간을 병상에서 지내야 했다. 그녀의 몸은 주사 자국으로 벌집처럼 되어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병상에서 지시하고, 가르치고, 글을 썼으며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성무일도 시간에는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였다.

그녀는 우리에게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예(yes)의 역사>, <하느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무엇을 말하였는가?> <우리들의 약속에 대한 예(yes)> <예, 하느님>이라는 책들이 출판되었으며 이외에도 수백 통의 편지와 메모들 그리고 다량의 녹음테이프를 남겨 놓았다. 선종 후에 그녀가 남겨 놓은 방대한 자료에서 일부분을 발췌하여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 <그의 밑발>이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출판되었다.

그녀는 1972년 8월 20일, 나바라 대학 부속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의 존경과 감탄 속에 세상을 떠났다. 감동 어린

이 마지막 순간을 여기 한정된 지면에서 다루기 어렵고 다음 기회를 위해 남겨 놓기로 하자. 마지막 수술에서는 더 이상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생의 마지막 날들을 지극한 고통과 사랑 그리고 완전한 의탁 속에 보냈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오! 제 뜻, 이제 제 뜻이라고는 없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뜻이라는 다른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
아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전
에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 애쓰며 저의 의지를 움
직였던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그분 뜻 안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생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녀는 간혹 “이 눈이 하느님을 바라 볼 수 있을 만큼 깨끗해졌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 보기도 하고 “예, 하느님. 예, 하느님”이라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다.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그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라는 말을 고요히 속삭이며 우리 곁을 떠났다. 사랑에 온전히 몸 바친 그녀의 일생을 총 결산하는 말이었다